

18석 중 13명이 초선... '호남정치 복원' 새 도전 나서야

민주당 광주·전남 전석 싸늘이... 윤동권·범조계 출신 주축 광주형 일자리·방사광 가속기 등 해결·당내 세 확장 '과제'

4·15 총선에서 광주·전남지역 민심은 과감한 변화를 선택하면서 4기 민주정부 창출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이번 총선 결과, 광주·전남 정치권의 세력 및 세대교체가 확실히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이 광주·전남 18석의 의석 가운데 무려 16석을 차지한 반면 민주당은 1석을 차지하는데 그쳤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전체 의석을 싸늘이하면서 완벽한 세력교체를 이뤘다. 천정배(6선)·박지원 의원(4선) 등 3선 이상 6명의 지역 중진의원들도 모두 21대 국회 진입에 실패, 세대교체도 현

실화됐다.

21대 국회에 진입하는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 진용을 살펴보면 3선이 되는 이개호 당선자와 재선이 되는 송갑석, 서삼석, 신정훈, 김승남 당선자 등을 제외한 13명이 모두 초선 의원들로 구성됐다.

특히, 학생 운동권 출신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전대협 의장 출신의 송갑석 당선자를 필두로 신정훈, 김승남, 이용빈, 조오섭, 김원익, 윤영덕 당선자 등이 그 주인공들이다. 범조계 인사들도 대거 당선됐다. 검사장 출신의 주철현, 김희재, 소방청 당선자와 민변(민주사회를 위

한 변호사회) 출신의 서동용 당선자 등을 들 수 있다. 관료 출신은 전남부지사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당선자와 광주시 부시장 출신의 이병훈 당선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 당선자와 해군 장성을 지낸 윤재갑 당선자, 언론계 출신의 민형배 당선자, 광주은행 노조위원장을 지낸 이형석 당선자 등 다양한 분야 출신의 인사들이 국회에 진입하게 됐다.

광주·전남에서 광역의원을 지낸 당선자들도 상당하다. 이형석·조오섭 당선자가 광주시의원 출신이며 서삼석·신정훈 당선자도 전남도위원을 지낸 바 있다. 또 주철현(여주시장), 서삼석(무안군수), 신정훈(나주시장), 민형배(광산구청장) 당선자들은 기초단체장 출신이기도 하다. 신정

훈, 민형배 당선자는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며 윤영덕 당선자는 행정관을 지낸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21대 국회에서 정국의 이수를 주도하고 민주당의 중심에 서면서 민주 진영의 심장이었던 호남 정치를 복원해 낼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대부분 초·재선에 불과하고 강력한 리더십이나 정치적 대승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하면서 당내에서 호남 정치권이 강력한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지역 현안 쟁기는 것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국민의당과의 경쟁 구도 등 호남 민심

을 고려, 당 차원에서 지역 현안을 나름 쟁겨왔으나 21대 국회에서는 타 지역과의 예산 및 정책에 있어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광주형 일자리, 군 공항 이전 등의 지역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현실에 안주하기 보다 새로운 시대의 비전과 가치를 선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과감한 정치적 도전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지역 정치권이 적극적 연대와 소통을 통해 민주당 내부에서 정치적 공간과 세를 확보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21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 원내 대표 경선(6월)에 이어 전당대회(8월)가 열리고 곧바로 대선 정국이 전개된다는 점

은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기회이자 정치적 시험대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에 광주·전남에서 최소한 1~2명이 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당내 주요 당직에도 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진출, 지역의 목소리와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벌써부터 광주시장 및 전남도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선자들 사이에서 은근히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나 나오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시대적 가치를 토대로 하는 과감한 도전과 응전이며 지역의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연대와 공조"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돌아선 민심·민주당 바람에 '역부족'

국민의당 분열 과정에 정치력 약화로... 재기 어려울 듯

민생당 몰락과 중진들 거취

4·15 총선에서 그동안 호남 정치를 상징했던 지역 중진의원들이 민주당 바람을 넘어지지 못하고 모두 낙선의 고배를 들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주승용 의원(4선)은 이번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천정배(6선)·박지원(4선)·박주선(4선)·김동철(4선)·장병완(3선) 의원 등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능력을 보고 선택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지지를 호소했지만 돌아선 민심을 막지 못했다.

광주·전남 민심의 이같은 선택은 민주당에 지지를 몰아주면서 4기 민주정부 창출에 힘을 보태겠다는 측면도 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중진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총선에서 한 차례 기회를 줬지만 전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지난 대선 패배는 그렇다고 해도 그 이후 지역 중진 의원들이 보여준 정치적 선택이 시대적 흐름은 물론 민심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이 민심의 냉정한 평가로 나타났다.

실제로 대선 패배 이후,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바르네대당으로 쪼개졌고 그 과정에서 지역 중진들은 서로 반목하고 갈라졌다. 이후 민주당과 평화당과 대안신당으로 나뉘면서 분열의 정점을 찍었다. 이러한 분열의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 중진들의 상호 불신과 분열은 호남의 정치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와중에 지역 중진들은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물론 당 대표, 비례위원, 원내대표 등 국회와 당의 핵심 요직을 모두 차지

하며 따뜻한 시절을 보냈지만 호남 정치의 미래를 위한 헌신은 외면했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중진 의원들 대다수가 60대 후반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차기 대선에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전망도 있지만 이미 그들의 시대는 저물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지역 중진들 상당수는 지난 총선에서 교체 대상이었지만 국민의당 바람에 생존한 측면이 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중진들이 보여준 정치적 비전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총선 결과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역 중진의원들을 제외한 민생당 및 무소속 초재선 현역 의원들의 패배도 민주당 바람의 영향이 컸지만 그들의 정치적 역량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 국민의당 바람에 편승해 국회에 진입한 측면이 크다. 그동안의 의정 활동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리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과감한 도전이나 투쟁보다는 상황에 따라 좌고우면하면서 정치적 활로 찾기에 급급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민주당 바람으로 21대 국회에 진입한 당선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막판 당을 떠나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되면 민주당에 입당하겠다는 공약한 '헬프 입당론'을 내걸고 총선에 나섰지만 민심의 선택을 받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비례대표 투표용지 분류 밤샘 작업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가 실시된 15일 밤 광주시 서구 개표소인 영주체육관에서 안전 마스크를 착용한 개표사무원들이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수기 분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통합당 패배 후폭풍 ... 지도부 해체

비대위 체제 전환

미래통합당은 총선 패배 책임론에 따른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황교안 대표 체제가 붕괴되고 '보수통합' 과정에서 구성된 과도기적 지도부도 해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조기 전당대회 등 당권 투쟁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대표는 15일 4·15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 사퇴를 선언했다. 황 대표는 이날 당 선거상황실이 꾸려진 국회도서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황 대표는 "이전에 약속한 대

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합당 지도부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변경될 전망이다.

그동안 통합당은 극렬하게 반대해 온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찰 내부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도 '바리판 봐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민주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하면서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원내 1당은 국회의장, 주요 상임위원장의 우선권을 쥐게 되어 있어 통합당은 더욱 힘을 잃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광록 기자 kroh@

정의당·국민의당 생존 '위태'

한자릿수 의석 '초라한 성적표'

이번 총선 결과 4년 전 총선에서 안철수 전 의원이 주도했던 '녹색태풍'은 미풍으로 변했다. 지난 2016년 광주·전남·북을 중심으로 불었던 안철수 열풍은 이번 총선에서 저조한 성적만을 남기고, 정당을 재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력도 얻지 못했다. 국민의당은 정당 득표 20%, 의석 10~15석 확보가 목표였지만 이에 크게 못 미쳐 당의 생존마저 위태롭게 됐다.

특히 정의당의 경우 중소 정당을 배려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된 이번 총선에서 거대 정당이 비례대표 맞춤형 위성

정당을 내놓으면서 불이익을 받아 향후 정치 행보에도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측된다.

2016년 4·13 총선 결과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녹색태풍'을 앞세워 창당 2개월여 만에 압승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국민의당의 '호남 압승'으로 한국 정치는 3당 체제로 정치 지형을 재편했다. 하지만 총선 뒤 호남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졌고, 대선 참패 뒤 민주당의 아픔을 겪으면서 정체성도 흐려졌다. 이에 4·15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귀국한 안철수 전 의원이 비례대표 득표를 위해 여수에서 서울까지 430km를 달렸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오광록 기자 kroh@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상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QR코드를 참고하세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